

탈당탈대탈단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 전자우편으로 성명
tdsc01@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런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 글자를 알려드립니다

제11기



탈당탈대탈단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 전자우편으로 성명
tdsc01@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런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 글자를 알려드립니다

제11기



목 록

재난 중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보.....	3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염하여 기사회생하다 ...	4
마음속에 진선인을 명기하면 재난이 닥쳐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6
전화위복하여 평안을 얻다	8
칠순 로인의 고마운 마음	10
위험에서 벗어난 두 아이	12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으니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분복을 받다	14
큰 언니의 좌우명	16
저의 일가족을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
성심으로 신의 구결을 염하면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	20
시동생과 아주머니의 부동한 운명	25
잔폐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다	28
파룬궁 소책자에 쓴 것은 모두 진짜이다	30
탈당 탈단 탈대 방법	32

목 록

재난 중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보.....	3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염하여 기사회생하다 ...	4
마음속에 진선인을 명기하면 재난이 닥쳐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6
전화위복하여 평안을 얻다	8
칠순 로인의 고마운 마음	10
위험에서 벗어난 두 아이	12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으니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분복을 받다	14
큰 언니의 좌우명	16
저의 일가족을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
성심으로 신의 구결을 염하면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	20
시동생과 아주머니의 부동한 운명	25
잔폐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다	28
파룬궁 소책자에 쓴 것은 모두 진짜이다	30
탈당 탈단 탈대 방법	32

사람만 만나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저의 부친을 구했습니다. 파룬궁 소책자에 쓴 것은 모두 진짜입니다.》 하고 말한다.

당신에게 한 쌍의 자유로운 날개를 드립니다

명혜 라디오 방송

목전 세 개의 단파 주파수를 사용하며 매일 세차례씩 방송하고 매차 1시간씩이다.북경시간아침 6 시-7 시, 7105 킬로 헤르츠;저녁 9 시-10 시, 6030 킬로 헤르츠;저녁 11 시-12 시, 11700 킬로 헤르츠.

희망의 소리 국제 라디오 방송

날마다 대륙을 향하여 6 시간씩 방송한다: 북경시간 아침: 6-7 시, 9.635 메가 헤르츠, 7-8 시, 7.310 메가 헤르츠; 저녁: 7-9 시, 7.280 메가 헤르츠, 9-10 시, 7.310 메가 헤르츠; 새벽: 0-1 점, 11.765 메가 헤르츠.



사람만 만나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저의 부친을 구했습니다. 파룬궁 소책자에 쓴 것은 모두 진짜입니다.》 하고 말한다.

당신에게 한 쌍의 자유로운 날개를 드립니다

명혜 라디오 방송

목전 세 개의 단파 주파수를 사용하며 매일 세차례씩 방송하고 매차 1시간씩이다.북경시간아침 6 시-7 시, 7105 킬로 헤르츠;저녁 9 시-10 시, 6030 킬로 헤르츠;저녁 11 시-12 시, 11700 킬로 헤르츠.

희망의 소리 국제 라디오 방송

날마다 대륙을 향하여 6 시간씩 방송한다: 북경시간 아침: 6-7 시, 9.635 메가 헤르츠, 7-8 시, 7.310 메가 헤르츠; 저녁: 7-9 시, 7.280 메가 헤르츠, 9-10 시, 7.310 메가 헤르츠; 새벽: 0-1 점, 11.765 메가 헤르츠.



에게 말하였다. 《괜찮으니 가보세요.》

이처럼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겪고 나서 리씨 딸애의 일가족은 더욱 대법을 믿게 되었다.

《파룬궁 소책자에 쓴 것은 모두 진짜이다》

조복(가명)은 료녕성 사람인데 흑룡강성 계서시 장신광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소 조복은 경상적으로 파룬따파의 진상 소책자를 보았다. 이로 하여 그는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중공사당과 그의 일체 부속조직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의 어느 날, 조복의 부친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맥을 짚어보니 맥박이 뛰지 않았다. 조복은 깜짝 놀랐다. 급한 김에 그는 파룬궁 소책자에 쓴 글이 생각났다. 난에 부딪쳤을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조복은 부친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신기하기도 한데 부친은 점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였다. 지금 그의 부친은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이다. 조복의 격동되고 감사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에게 말하였다. 《괜찮으니 가보세요.》

이처럼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겪고 나서 리씨 딸애의 일가족은 더욱 대법을 믿게 되었다.

《파룬궁 소책자에 쓴 것은 모두 진짜이다》

조복(가명)은 료녕성 사람인데 흑룡강성 계서시 장신광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소 조복은 경상적으로 파룬따파의 진상 소책자를 보았다. 이로 하여 그는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중공사당과 그의 일체 부속조직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의 어느 날, 조복의 부친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맥을 짚어보니 맥박이 뛰지 않았다. 조복은 깜짝 놀랐다. 급한 김에 그는 파룬궁 소책자에 쓴 글이 생각났다. 난에 부딪쳤을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조복은 부친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신기하기도 한데 부친은 점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였다. 지금 그의 부친은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이다. 조복의 격동되고 감사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재난중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보

하북 료양의 한 농민은 나이가 40 여세이며 경 상적으로 외지에 나가 일을 한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손등에는 수수쌀알만큼 한 뼛루지가 생겼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날이 가면서 점차 심해져 50 전짜리 동전앞만큼 커졌으며 우에는 딱지가 앉았다. 밖으로 고름이 흘러나왔는데 딱지를 제치고 보면 깨알 같은 작은 구멍들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도처에서 의사를 찾고 약을 써보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벌 동지 창이어서 완치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다. 부근의 중서의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천진의 큰 병원으로 갔더니 그곳의 의사도 병의 이름과 원인을 똑똑하게 말하지 못하고 다만 진균 감염이라고 하였다. 치료하고 약을 쓰는 기간에도 고름은 계속 흘러나왔고 몇 천원을 썼지만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벌 뽕족한 수가 없는 상황하에서 집으로 돌아와 북경으로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기로 결정지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누나가 이 일을 알고 그를 보러 왔다. 누나는 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재삼 당부하였다. 그는 큰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니 한번 시험

재난중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보

하북 료양의 한 농민은 나이가 40 여세이며 경 상적으로 외지에 나가 일을 한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손등에는 수수쌀알만큼 한 뼛루지가 생겼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날이 가면서 점차 심해져 50 전짜리 동전앞만큼 커졌으며 우에는 딱지가 앉았다. 밖으로 고름이 흘러나왔는데 딱지를 제치고 보면 깨알 같은 작은 구멍들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도처에서 의사를 찾고 약을 써보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벌 동지 창이어서 완치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다. 부근의 중서의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천진의 큰 병원으로 갔더니 그곳의 의사도 병의 이름과 원인을 똑똑하게 말하지 못하고 다만 진균 감염이라고 하였다. 치료하고 약을 쓰는 기간에도 고름은 계속 흘러나왔고 몇 천원을 썼지만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벌 뽕족한 수가 없는 상황하에서 집으로 돌아와 북경으로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기로 결정지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누나가 이 일을 알고 그를 보러 왔다. 누나는 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재삼 당부하였다. 그는 큰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니 한번 시험

해보기로 하였다.

결과 기적이 나타났다. 며칠 후에 그는 또 북경의 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고름으로 화형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고름은 짚 수 없었고 나온 것은 새빨간 피뿐이었다. 의사는 웃었다. 《이 병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지금 그들 온 가족은 모두 파룬궁을 사람을 구하는 것임을 믿게 되었으며 일가족 십여 식솔이 모두 탈당, 탈단, 탈대 하였다.

천재와 인화가 끊이지 않는 2008 년에 선량한 로백성들이 모두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며 못 미더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 때문에 친히 시험해 보지 못하는가?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을 염(念)하는 것은 참말로 재난 중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보 (法寶) 이다!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는 염하여 기사회생하다

파룬궁 학원의 진상을 들은 후, 나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룬궁 학원은 또 위험이나 재난에 부딪혔을 때 성심

해보기로 하였다.

결과 기적이 나타났다. 며칠 후에 그는 또 북경의 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고름으로 화형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고름은 짚 수 없었고 나온 것은 새빨간 피뿐이었다. 의사는 웃었다. 《이 병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지금 그들 온 가족은 모두 파룬궁을 사람을 구하는 것임을 믿게 되었으며 일가족 십여 식솔이 모두 탈당, 탈단, 탈대 하였다.

천재와 인화가 끊이지 않는 2008 년에 선량한 로백성들이 모두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며 못 미더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 때문에 친히 시험해 보지 못하는가?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을 염(念)하는 것은 참말로 재난 중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보 (法寶) 이다!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는 염하여 기사회생하다

파룬궁 학원의 진상을 들은 후, 나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룬궁 학원은 또 위험이나 재난에 부딪혔을 때 성심

아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에 내버려두었다. 리씨는 외 손군의 정황을 들은 후, 딸에게 말하였다.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부는 아이를 집으로 안아왔다. 아이가 울음보를 터뜨릴 때면 내외는 아이에게 말하였다. 《애야,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해라.》 아이가 11 개월이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아이는 다리를 들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점차 정상적인 아이로 변해갔다. 지금 아이는 이미 여섯 살인데 천진하고 활발하고 총명하며 일체가 정상하여 이미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또 한가지는 리씨의 딸의 몸에서 발생한 일이다. 작년 10 월 좌우, 리씨의 딸은 전동차를 타고 신방에 신 바꾸러 갔다. 정(丁)자 거리에 이르렀을 때 철근을 실은 대형화물차 한대가 나는 듯이 달려왔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급정거를 해도 이미 늦은 상태였다. 이때 기적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질주하고 있던 전동차가 갑자기 급속히 뒤로 2 미터 남짓이 후퇴하여 대형 화물차와 손가락 하나 사이의 간격이 남아있었다. 화물차 사기는 너무도 놀라 차문에 앞드려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리씨의 딸은 정신을 차리고 화물차 사기

아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에 내버려두었다. 리씨는 외 손군의 정황을 들은 후, 딸에게 말하였다.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부는 아이를 집으로 안아왔다. 아이가 울음보를 터뜨릴 때면 내외는 아이에게 말하였다. 《애야,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해라.》 아이가 11 개월이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아이는 다리를 들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점차 정상적인 아이로 변해갔다. 지금 아이는 이미 여섯 살인데 천진하고 활발하고 총명하며 일체가 정상하여 이미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또 한가지는 리씨의 딸의 몸에서 발생한 일이다. 작년 10 월 좌우, 리씨의 딸은 전동차를 타고 신방에 신 바꾸러 갔다. 정(丁)자 거리에 이르렀을 때 철근을 실은 대형화물차 한대가 나는 듯이 달려왔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급정거를 해도 이미 늦은 상태였다. 이때 기적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질주하고 있던 전동차가 갑자기 급속히 뒤로 2 미터 남짓이 후퇴하여 대형 화물차와 손가락 하나 사이의 간격이 남아있었다. 화물차 사기는 너무도 놀라 차문에 앞드려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리씨의 딸은 정신을 차리고 화물차 사기

룬궁이 그녀를 구한것이라고 하였다.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고함치듯이 말하였다. 《나는 파룬궁을 믿지 않소. 나를 어쩔셈이요?》 재빨리 그녀의 병은 원래 모양이 되고 며칠이 안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이 일은 현지에서 아주 빨리 널리 전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파룬궁에 대해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에게 부동한 운명을 가져다 준다고.

잔폐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다



당해농장에는 리씨라고 하는 파룬궁 학원이 있다. 그녀의 딸 집은 풍남현에 있고 일가족은 세 식솔이다. 리씨의 외손군이 여섯 달이 되었을 때 경상적으로 정신을 잃고 눈길도 곧았다. 머리 꼭대기 천문에는 또 닭알만 큼한 혹이 있었다. 당산병원에 가서 검사하였더니 전문의는 선천성 뇌 수축에 뇌에 물이 차있어 세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술비는 35 만 원이 들어야 하고 아이는 평생토록 세 살짜리 아이의 지력 밖에 안될 것이며 생활에서 자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기에

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念)하기만 하면 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3월 중순의 어느 하루 아침, 딸애가 성도 쌍류 비행장으로 가던 도중 자동차에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후에 마음씨 고운 사람이 병원으로 보내어 구급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병원에서 거액의 선불금을 요구하였기에 집에 통지가 왔다. 딸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인촌 파룬궁 학원이 알려준 대법의 진상이 떠올랐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만 파룬따파의 사부님만이 딸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파룬궁 학원이 알려준 생명을 구하는 아홉 글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法輪大法好, 真善忍好”))가 생각났다. 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줄곧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리대사님이시여, 꼭 저의 딸애를 구해주십시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얼마 안되어 차가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서는 이미 몇 차례나 병이 위독하다는 통지가 내리고 나의 딸애에게 상처가 너무 심하여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혼미 중에 있는 딸애의 귀 전에다 쉬임없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였다. 딸애는 끝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나는 격동된 심정으로 딸애에게

룬궁이 그녀를 구한것이라고 하였다.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고함치듯이 말하였다. 《나는 파룬궁을 믿지 않소. 나를 어쩔셈이요?》 재빨리 그녀의 병은 원래 모양이 되고 며칠이 안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이 일은 현지에서 아주 빨리 널리 전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파룬궁에 대해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에게 부동한 운명을 가져다 준다고.

잔폐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다



당해농장에는 리씨라고 하는 파룬궁 학원이 있다. 그녀의 딸 집은 풍남현에 있고 일가족은 세 식솔이다. 리씨의 외손군이 여섯 달이 되었을 때 경상적으로 정신을 잃고 눈길도 곧았다. 머리 꼭대기 천문에는 또 닭알만 큼한 혹이 있었다. 당산병원에 가서 검사하였더니 전문의는 선천성 뇌 수축에 뇌에 물이 차있어 세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술비는 35 만 원이 들어야 하고 아이는 평생토록 세 살짜리 아이의 지력 밖에 안될 것이며 생활에서 자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기에

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念)하기만 하면 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3월 중순의 어느 하루 아침, 딸애가 성도 쌍류 비행장으로 가던 도중 자동차에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후에 마음씨 고운 사람이 병원으로 보내어 구급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병원에서 거액의 선불금을 요구하였기에 집에 통지가 왔다. 딸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인촌 파룬궁 학원이 알려준 대법의 진상이 떠올랐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만 파룬따파의 사부님만이 딸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파룬궁 학원이 알려준 생명을 구하는 아홉 글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法輪大法好, 真善忍好”))가 생각났다. 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줄곧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리대사님이시여, 꼭 저의 딸애를 구해주십시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얼마 안되어 차가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서는 이미 몇 차례나 병이 위독하다는 통지가 내리고 나의 딸애에게 상처가 너무 심하여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혼미 중에 있는 딸애의 귀 전에다 쉬임없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였다. 딸애는 끝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나는 격동된 심정으로 딸애에게

말하였다. 《리대사님께서 너의 목숨을 구해주셨다. 너도 응당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해야 한다.》 지금 딸애는 이미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날마다 호전을 보이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아홉 글자가 딸애의 몸에서 그 신기함을 나타내어 나로 하여금 대법은 세인을 구도하는 정법임을 더욱 믿게 하였다. 지금 나는 경건하게 생명을 구해준 리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파룬궁 학원이 나더러 파룬궁이 박해를 받은 진상을 깨닫게 한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나는 더욱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면 재난이 닥쳐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음속에 진선인을 명기하면 재난이 닥쳐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나는 하복성 찬황현 사람이며 금년에 40 여세 이고 이름은 넷째(가명)라고 부른다. 십여 년이래, 나는 줄곧 두통 시달림을 받아왔다. 도처에서 의사를 찾고 약을 구하면서 돈은 적지 않게 팔았지만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다. 의사는 머리를 가르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 뿌리를 뽑을 수 있을 지는

님과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근년에 경상적으로 위병이 도져 치료해도 호전이 보이지 않고 사람은 야위어서 볼모양이 없었다. 나중에 아주머니는 아예 음식을 넘길수 없었다. 현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말기였다. 또 하얼빈 종류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의사는 옹근 위가 종류에 막혀버려 치료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주머니는 정맥주사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죽기를 기다렸다. 리씨는 듣고나서 재빨리 형님 집으로 찾아가 아주머니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권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 아홉글자를 묵념하여 맥관염이 나았다고 하였다. 아주머니는 리씨의 말을 들은 그날부터 묵념을 시작하였다. 이튿날 아주머니의 병세는 선명한 호전을 보였고 죽 반 사발을 먹을 수 있었다. 가족에서는 기뻐하면서 모두 파룬궁이 참 신기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아주머니의 둘째 딸이 돌아올줄이야. 둘째 딸은 결혼하여 외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검은 콩 삶은 물을 대접하였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병은 그녀의 기도와 검은 콩물을 마신 덕에 나았다고 하였다. 이에 리씨는 급해나서 아주머니에게 딸의 말을 절대 믿지 말며 파

말하였다. 《리대사님께서 너의 목숨을 구해주셨다. 너도 응당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해야 한다.》 지금 딸애는 이미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날마다 호전을 보이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아홉 글자가 딸애의 몸에서 그 신기함을 나타내어 나로 하여금 대법은 세인을 구도하는 정법임을 더욱 믿게 하였다. 지금 나는 경건하게 생명을 구해준 리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파룬궁 학원이 나더러 파룬궁이 박해를 받은 진상을 깨닫게 한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나는 더욱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면 재난이 닥쳐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음속에 진선인을 명기하면 재난이 닥쳐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나는 하복성 찬황현 사람이며 금년에 40 여세 이고 이름은 넷째(가명)라고 부른다. 십여 년이래, 나는 줄곧 두통 시달림을 받아왔다. 도처에서 의사를 찾고 약을 구하면서 돈은 적지 않게 팔았지만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다. 의사는 머리를 가르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 뿌리를 뽑을 수 있을 지는

님과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근년에 경상적으로 위병이 도져 치료해도 호전이 보이지 않고 사람은 야위어서 볼모양이 없었다. 나중에 아주머니는 아예 음식을 넘길수 없었다. 현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말기였다. 또 하얼빈 종류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의사는 옹근 위가 종류에 막혀버려 치료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주머니는 정맥주사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죽기를 기다렸다. 리씨는 듣고나서 재빨리 형님 집으로 찾아가 아주머니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권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 아홉글자를 묵념하여 맥관염이 나았다고 하였다. 아주머니는 리씨의 말을 들은 그날부터 묵념을 시작하였다. 이튿날 아주머니의 병세는 선명한 호전을 보였고 죽 반 사발을 먹을 수 있었다. 가족에서는 기뻐하면서 모두 파룬궁이 참 신기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아주머니의 둘째 딸이 돌아올줄이야. 둘째 딸은 결혼하여 외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검은 콩 삶은 물을 대접하였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병은 그녀의 기도와 검은 콩물을 마신 덕에 나았다고 하였다. 이에 리씨는 급해나서 아주머니에게 딸의 말을 절대 믿지 말며 파

없습니다. 》 하고 말하였다.

리씨는 절망하였다. 이때 성시에 사는 그의 누님이 왔다. 누님은 70 여세인데 퇴직간부이다. 과거에 누님은 온몸에 병이어서 일년내내 자리에 누워있었고 해마다 의료비만 7,8 천씩 팔았다. 그런데 지금 누님의 얼굴은 붉은 빛이 만면하고 걸음걸이가 거뽏하여 전혀 환자같지 않았다. 리씨는 궁금하여 누님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가고 물었다. 누님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나았다.》 이어서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권하였다. 또 그에게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록음테이프를 주었다. 이때로부터 리씨는 날마다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록음을 듣고 짬이 나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리씨의 두다리는 지각이 있게 되었으며 검은 색이 나던 발도 점차 정상적인 색상을 회복하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었다. 온 가족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파룬궁의 창시인 리대사님께 감사사를 드렸다.

한 마을에는 또 리씨의 형



없습니다. 》 하고 말하였다.

리씨는 절망하였다. 이때 성시에 사는 그의 누님이 왔다. 누님은 70 여세인데 퇴직간부이다. 과거에 누님은 온몸에 병이어서 일년내내 자리에 누워있었고 해마다 의료비만 7,8 천씩 팔았다. 그런데 지금 누님의 얼굴은 붉은 빛이 만면하고 걸음걸이가 거뽏하여 전혀 환자같지 않았다. 리씨는 궁금하여 누님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가고 물었다. 누님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나았다.》 이어서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권하였다. 또 그에게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록음테이프를 주었다. 이때로부터 리씨는 날마다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록음을 듣고 짬이 나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리씨의 두다리는 지각이 있게 되었으며 검은 색이 나던 발도 점차 정상적인 색상을 회복하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었다. 온 가족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파룬궁의 창시인 리대사님께 감사사를 드렸다.

한 마을에는 또 리씨의 형



보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몇 만원의 돈을 써야 했는데 이 돈은 우리 가정으로 놓고 말하면 천문 숫자였다. 남편은 거리에서 신 수리를 하고 아들딸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얼마 전에 금방 새집을 지었으며 집에는 또 연세가 많고 다병한 부모님이 있었다. 더 치료를 받을 형편이 못되었기에 나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문 어구에 놓인 파룬궁 전단지를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念)하면 분복을 받는다고 써어있었다. 내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험해보라고 하였다. 그 후부터 나는 짬만 나면 마음속으로 묵념하였다. 생각 밖에도 나를 몇 십 년이나 괴롭히던 두통이 치료도 받지 않고 말끔히 완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일을 하여 돈도 벌 수 있게 되었다. 남편도 파룬궁은 참 신기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한가지 신기한 일이 있다. 어느 하루 저녁, 나는 이러한 꿈을 꾸었다. 꿈에 일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빨리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면 그들이 우



보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몇 만원의 돈을 써야 했는데 이 돈은 우리 가정으로 놓고 말하면 천문 숫자였다. 남편은 거리에서 신 수리를 하고 아들딸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얼마 전에 금방 새집을 지었으며 집에는 또 연세가 많고 다병한 부모님이 있었다. 더 치료를 받을 형편이 못되었기에 나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문 어구에 놓인 파룬궁 전단지를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念)하면 분복을 받는다고 써어있었다. 내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험해보라고 하였다. 그 후부터 나는 짬만 나면 마음속으로 묵념하였다. 생각 밖에도 나를 몇 십 년이나 괴롭히던 두통이 치료도 받지 않고 말끔히 완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일을 하여 돈도 벌 수 있게 되었다. 남편도 파룬궁은 참 신기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한가지 신기한 일이 있다. 어느 하루 저녁, 나는 이러한 꿈을 꾸었다. 꿈에 일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빨리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면 그들이 우



리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사람들은 두 차례나 우리 집에 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불러 깨웠다. 원래 나와 남편은 석탄가스에 중독되었는데 한방에서 쉬던 어머니는 도리어 아무일 없었다. 점심에 딸애가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와 집에 별일이 없는 가고 물었다. 그녀도 불길한 꿈을 꾸고 집에 일이 생겼을 가봐 걱정 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나는 철저하게 파룬궁에 탄복하였다. 파룬궁이 나와 남편을 구하였다. 파룬궁 사부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겁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지옥의 귀신들에게 잡혀가지 않았다. 우리는 파룬따파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믿고 마음속으로 늘 진선인을 염하여 재난이 닥쳐올 때 생명을 확보하고 절대로 악당의 선전과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전화위복하여 평안을 얻다

나는 전기공이다. 2008 년 5 월 12 일 오후, 나와 동료는 회사식당의 천정에다 전선을 가설하고 있었다. 머리 위는 푸른색 기와이고 발 아래는 천정꼭

리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사람들은 두 차례나 우리 집에 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불러 깨웠다. 원래 나와 남편은 석탄가스에 중독되었는데 한방에서 쉬던 어머니는 도리어 아무일 없었다. 점심에 딸애가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와 집에 별일이 없는 가고 물었다. 그녀도 불길한 꿈을 꾸고 집에 일이 생겼을 가봐 걱정 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나는 철저하게 파룬궁에 탄복하였다. 파룬궁이 나와 남편을 구하였다. 파룬궁 사부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겁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지옥의 귀신들에게 잡혀가지 않았다. 우리는 파룬따파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믿고 마음속으로 늘 진선인을 염하여 재난이 닥쳐올 때 생명을 확보하고 절대로 악당의 선전과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전화위복하여 평안을 얻다

나는 전기공이다. 2008 년 5 월 12 일 오후, 나와 동료는 회사식당의 천정에다 전선을 가설하고 있었다. 머리 위는 푸른색 기와이고 발 아래는 천정꼭

아가 잘 읽어보고 집으로 가서 부모님들더러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꼭 흉한 일이 길하게 변하고 전화위복 한다고 알려 주라고 하였다.

명절기간에 쇼왕은 말미를 맡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가르쳐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읽었는데 며칠이 지나니 자리에서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나니 몽땅 나아 발에 나가 일도 할 수 있었다. 지금 일년이 지났는데 신체가 아주 좋아 쇼왕의 근심을 덜었다. 그는 지금 안심하고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시동생과 아주머니의 부동한 운명

리수산(가명)은 흑룡강성 빈현의 한 보통 촌민이며 금년에 57 세이다. 몇 년전에 리씨는 맥관염에 걸렸다. 단 1 년만에 두발이 몽땅 검어지고 두다리는 장단지로부터 아래부분이 몽땅 감각을 잃어버렸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되어 그만 폐인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병을 치료하는데 1 만 7 천원을 써버렸으나 병은 치료할 수록 더욱 중해져 나중에 의사는 《이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절지 할 수밖에

아가 잘 읽어보고 집으로 가서 부모님들더러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꼭 흉한 일이 길하게 변하고 전화위복 한다고 알려 주라고 하였다.

명절기간에 쇼왕은 말미를 맡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가르쳐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읽었는데 며칠이 지나니 자리에서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나니 몽땅 나아 발에 나가 일도 할 수 있었다. 지금 일년이 지났는데 신체가 아주 좋아 쇼왕의 근심을 덜었다. 그는 지금 안심하고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시동생과 아주머니의 부동한 운명

리수산(가명)은 흑룡강성 빈현의 한 보통 촌민이며 금년에 57 세이다. 몇 년전에 리씨는 맥관염에 걸렸다. 단 1 년만에 두발이 몽땅 검어지고 두다리는 장단지로부터 아래부분이 몽땅 감각을 잃어버렸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되어 그만 폐인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병을 치료하는데 1 만 7 천원을 써버렸으나 병은 치료할 수록 더욱 중해져 나중에 의사는 《이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절지 할 수밖에

병원에 이르러 아버지께 말씀 드렸더니 로인은 두 손으로 호신부를 받쳐 들고 기뻐하며 연거푸 감사하다고 하였다. 다음 경건하게 웃웃 호주머니에 넣고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였다. 그 후로 신체는 날마다 좋아지고 얼마 후에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간 후, 여러 가지 진상 소책자를 보고 신운 CD 를 보았으며 그 후에는 또 《전법륜》과 연공 테이프를 보았다. 지금까지 1 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별탈이 없고 일가족이 모두 진상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동료 쇼왕은 대학을 졸업하고 금방 사업에 참가하였다. 부모님들은 멀리 고향에서 발을 다루고 아껴먹고 아껴 쓰면서 어렵게 그의 뒷바라지를 하였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지친 나머지 뇌일혈에 걸렸다. 병원에 호송하여 구급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먹고 마시고 뒤를 보는 일마저 다른 사람이 보살펴야 했는데 자식들은 모두 객지에서 출근을 하다 보니 안팎의 일은 몽땅 년로한 아버지가 도맡아야 했다. 젊은이는 급해서 온종일 눈물을 흘렸다.

하루는 나의 사무실에 왔기에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 해 주었다. 또 《하늘이 내린 복》,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 글자를 알려드립니다》 등 진상 소책자와 대법의 호신부를 주면서 돌

병원에 이르러 아버지께 말씀 드렸더니 로인은 두 손으로 호신부를 받쳐 들고 기뻐하며 연거푸 감사하다고 하였다. 다음 경건하게 웃웃 호주머니에 넣고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였다. 그 후로 신체는 날마다 좋아지고 얼마 후에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간 후, 여러 가지 진상 소책자를 보고 신운 CD 를 보았으며 그 후에는 또 《전법륜》과 연공 테이프를 보았다. 지금까지 1 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별탈이 없고 일가족이 모두 진상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동료 쇼왕은 대학을 졸업하고 금방 사업에 참가하였다. 부모님들은 멀리 고향에서 발을 다루고 아껴먹고 아껴 쓰면서 어렵게 그의 뒷바라지를 하였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지친 나머지 뇌일혈에 걸렸다. 병원에 호송하여 구급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먹고 마시고 뒤를 보는 일마저 다른 사람이 보살펴야 했는데 자식들은 모두 객지에서 출근을 하다 보니 안팎의 일은 몽땅 년로한 아버지가 도맡아야 했다. 젊은이는 급해서 온종일 눈물을 흘렸다.

하루는 나의 사무실에 왔기에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 해 주었다. 또 《하늘이 내린 복》,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 글자를 알려드립니다》 등 진상 소책자와 대법의 호신부를 주면서 돌

대기여서 한발을 헛디디면 천정을 꿰뚫고 떨어지게 되어있었다.

대략 14 시 좌우, 갑자기 발 아래의 천정이 강렬하게 움직이지 시작하였다. 나는 누가 올라오면서 흔드는 줄로 알았다. 그리하여 《조심해, 넘어질라!》 하고 소리쳤다. 동료가 말하였다. 《그런 같지 않아. 기와까지 움직이는걸. 지진이야!》 나는 대뜸 정신을 차렸다. 이때 평시에 보아왔던 파룬궁 진상자료에서 한 말이 생각났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의 몸에는 또 대법의 호신부도 있었다. 나는 즉시 동료에게 소리쳤다. 《빨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의 마음은 대뜸 평온해 지고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같이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였다. 귀에서는 웅웅 거리는 지진 소리와 머리우의 푸른 기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발 아래에서는 천정이 요란하게 움직였지만 기와 한 조각도 우리 몸에 떨어지지 않았다. 대략 2,3 분이 지나 지진이 멈추는 사이에 우리는 무사하게 천정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격동된 마음으로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렸다.

후에 우리는 집에서 달려 나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번 대 지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대기여서 한발을 헛디디면 천정을 꿰뚫고 떨어지게 되어있었다.

대략 14 시 좌우, 갑자기 발 아래의 천정이 강렬하게 움직이지 시작하였다. 나는 누가 올라오면서 흔드는 줄로 알았다. 그리하여 《조심해, 넘어질라!》 하고 소리쳤다. 동료가 말하였다. 《그런 같지 않아. 기와까지 움직이는걸. 지진이야!》 나는 대뜸 정신을 차렸다. 이때 평시에 보아왔던 파룬궁 진상자료에서 한 말이 생각났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의 몸에는 또 대법의 호신부도 있었다. 나는 즉시 동료에게 소리쳤다. 《빨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의 마음은 대뜸 평온해 지고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같이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였다. 귀에서는 웅웅 거리는 지진 소리와 머리우의 푸른 기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발 아래에서는 천정이 요란하게 움직였지만 기와 한 조각도 우리 몸에 떨어지지 않았다. 대략 2,3 분이 지나 지진이 멈추는 사이에 우리는 무사하게 천정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격동된 마음으로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렸다.

후에 우리는 집에서 달려 나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번 대 지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었으며 술한 집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듣고 나서 우리의 가슴은 못내 아팠다. 여러 해 동안 손질해온 그 푸른 기와 식당은 지진 중에서 무너지지도 않고 아무런 손상도 보지 않았다. 나와 동료는 재난 중에서 평안한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생명을 구해준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렸다. 오늘 이 한 단락의 경력을 적는 것은 여러 분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한마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이다. 위험이 닥쳐올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한다면 꼭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칠순 로인의 고마운 마음

하북성 평산현 양가교향 모촌에는 금년에 72 세에 나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다. 1996 년의 한차례 특대 홍수로 인해 그의 몇몇 아들은 부득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거주하고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만이 고향집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다년간 생활의 신고로 말미암아 그녀의 신체는 지쳐서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녀는 늘 마을 밖의 산에 있는 신묘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제비를 뽑아 길흉을 점쳤지만 시종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10

죽었으며 술한 집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듣고 나서 우리의 가슴은 못내 아팠다. 여러 해 동안 손질해온 그 푸른 기와 식당은 지진 중에서 무너지지도 않고 아무런 손상도 보지 않았다. 나와 동료는 재난 중에서 평안한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생명을 구해준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렸다. 오늘 이 한 단락의 경력을 적는 것은 여러 분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한마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이다. 위험이 닥쳐올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염한다면 꼭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칠순 로인의 고마운 마음

하북성 평산현 양가교향 모촌에는 금년에 72 세에 나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다. 1996 년의 한차례 특대 홍수로 인해 그의 몇몇 아들은 부득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거주하고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만이 고향집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다년간 생활의 신고로 말미암아 그녀의 신체는 지쳐서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녀는 늘 마을 밖의 산에 있는 신묘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제비를 뽑아 길흉을 점쳤지만 시종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10

다른 한 동료 쇼류의 아버지는 폐암에 걸려 폐를 한 조각 잘라내었다. 화학약품 치료 등 여러 방면의 치료를 받는데 근 10 만여 원의 돈을 쓰고 의사도 인젠 별일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감각이 좋지 않았는데 폐가 아프고 숨이 올라오지 않았으며 식욕이 당기지 않았다.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폐가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적치되고 암세포도 전이되었다. 더는 수술을 받을 수 없었기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수적인 치료를 받았다. 주사도 맞고 항암치료도 받았다. 체력은 급격히 하강되고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돈을 한 뭉치씩 썼지만 며칠이나 더 살수 있을지 몰랐다. 쇼류와 언니는 수입이 모두 높지 못했다. 그들은 말미를 맞고 윤번으로 간호 할뿐만 아니라 방법을 대어 돈을 빌려야 했으니 그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어느 하루, 나는 쇼류가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영문을 몰아서야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 해 주었더니 그녀는 대뜸 믿었다. 나는 또 그녀에게 대법의 호신부를 주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위에 씌어진 대로 날마다 읽는다면 보종코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한사코 고맙다고 하였다.

23

다른 한 동료 쇼류의 아버지는 폐암에 걸려 폐를 한 조각 잘라내었다. 화학약품 치료 등 여러 방면의 치료를 받는데 근 10 만여 원의 돈을 쓰고 의사도 인젠 별일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감각이 좋지 않았는데 폐가 아프고 숨이 올라오지 않았으며 식욕이 당기지 않았다.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폐가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적치되고 암세포도 전이되었다. 더는 수술을 받을 수 없었기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수적인 치료를 받았다. 주사도 맞고 항암치료도 받았다. 체력은 급격히 하강되고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돈을 한 뭉치씩 썼지만 며칠이나 더 살수 있을지 몰랐다. 쇼류와 언니는 수입이 모두 높지 못했다. 그들은 말미를 맞고 윤번으로 간호 할뿐만 아니라 방법을 대어 돈을 빌려야 했으니 그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어느 하루, 나는 쇼류가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영문을 몰아서야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 해 주었더니 그녀는 대뜸 믿었다. 나는 또 그녀에게 대법의 호신부를 주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위에 씌어진 대로 날마다 읽는다면 보종코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한사코 고맙다고 하였다.

23

들도 같이 염하도록 하세요.》 그녀는 옆에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녀에게도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튿날, 그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너무 신기해요. 혈소판이 이미 3만으로 올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7만으로 올랐다고 하였다. 일주일이나 지나자 일체가 정상해졌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도 돌아와서 출근하였다.

돌아와서 만나자 바람으로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그녀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병원에 무슨 원인으로 발생한 것 인가고 추궁하자 병원에서는 약을 잘못 썼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소홀함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을 번 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격분하여 말하였다. 《다시는 사당의 병원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탈당하고 집사람과 같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기 시작하였다. 한 해가 지나도록 늙은 양주는 아무 병도 없고 다시는 료양원에 갈 필요도 없었다.

장씨는 지금 《전법륜》을 보고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한다. 일에 부딪치면 우선 먼저 《진선인》을 생각하고 심정도 아주 좋으며 동료 사이의 관계도 좋아졌다.



들도 같이 염하도록 하세요.》 그녀는 옆에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녀에게도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튿날, 그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너무 신기해요. 혈소판이 이미 3만으로 올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7만으로 올랐다고 하였다. 일주일이나 지나자 일체가 정상해졌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도 돌아와서 출근하였다.

돌아와서 만나자 바람으로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그녀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병원에 무슨 원인으로 발생한 것 인가고 추궁하자 병원에서는 약을 잘못 썼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소홀함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을 번 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격분하여 말하였다. 《다시는 사당의 병원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탈당하고 집사람과 같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기 시작하였다. 한 해가 지나도록 늙은 양주는 아무 병도 없고 다시는 료양원에 갈 필요도 없었다.

장씨는 지금 《전법륜》을 보고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한다. 일에 부딪치면 우선 먼저 《진선인》을 생각하고 심정도 아주 좋으며 동료 사이의 관계도 좋아졌다.



2006년 2월, 셋째 며느리가 그녀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하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신체가 꼭 건강해질 것이며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마음에서 새기고 밭에서 일을 하던 집에서 가무를 보던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잊지 않았다. 얼마 안되어 그녀의 신체는 신기하게 건강을 되찾았고 다년간의 고질병이 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7,8 무의 밭을 다루는 한편 짬이 나면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가을에는 등짐으로 옥수수를 집에 지고 온다……할머니는 진정으로 대법의 신기와 아름다움을 감수하였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온 말로 고향 사람들에게 말 하곤 한다.

《파룬따파의 사부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소. 파룬따파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오!》

지금, 할머니는 며느리의 방조하게 이미 파룬따파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2006년 2월, 셋째 며느리가 그녀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하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신체가 꼭 건강해질 것이며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마음에서 새기고 밭에서 일을 하던 집에서 가무를 보던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잊지 않았다. 얼마 안되어 그녀의 신체는 신기하게 건강을 되찾았고 다년간의 고질병이 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7,8 무의 밭을 다루는 한편 짬이 나면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가을에는 등짐으로 옥수수를 집에 지고 온다……할머니는 진정으로 대법의 신기와 아름다움을 감수하였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온 말로 고향 사람들에게 말 하곤 한다.

《파룬따파의 사부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소. 파룬따파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오!》

지금, 할머니는 며느리의 방조하게 이미 파룬따파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위험에서 벗어난 두 아이



흑룡강 매성 학강시에는 년로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다. 그녀에게는 손자가 있는데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애지중지 하였다. 2006 년, 할머니는 사람을 청하여 점괘를 보았다. 그런데 손자가 이듬해 가을이면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할 줄이야. 그 후로 노인에게는 걱정거리가 붙어 하루 종일 시름에 잠겨있었다. 지금은 집집마다 애 하나밖에 없는데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노인은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어느 하루, 할머니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나 손자의 점괘를 본 일을 이야기 하였다. 그 사람은 파룬궁 학원이었는데 손자를 소선대에서 탈퇴시키고 성심으로 경건하게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설사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아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일일이 파룬궁 학원의 부탁대로 하였다. 이듬해 가을의 어느 하루, 소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정말로 차에 부딪쳤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가 조금도 상하지 않고

3 천으로 내려가 생명이 위험해졌다. 피를 수혈하고 좋은 약은 다 썼지만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안되겠으니 후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가족에서는 급히 장씨에서 전화를 걸어 즉시 비행기로 북경으로 돌아오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녀는 즉시 점심의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울면서 총 경리를 찾아 말미를 맡았다. 내가 그녀를 만나서 무슨 일인 가고 묻자 그녀는 울면서 사실을 이야기 했다. 나는 그녀를 안위하며 말하였다. 《급해하지 말아요. 내가 말한 대로만 한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내가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대법의 사부님께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하세요. 북경에 이를 때까지 염한다면 꼭 효과가 있을 거예요.》하자 그녀는 《좋아요. 꼭 그대로 할 거예요.》 하고는 묵념을 하면서 길을 떠났다.

오후 다섯 시 남짓하여 그녀가 북경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고마워요. 저는 줄곧 묵념하면서 북경까지 갔어요. 병원에 이르러보니 아버지는 이미 피를 토하지 않고 상태가 온정되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염하세요. 가족

위험에서 벗어난 두 아이



흑룡강 매성 학강시에는 년로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다. 그녀에게는 손자가 있는데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애지중지 하였다. 2006 년, 할머니는 사람을 청하여 점괘를 보았다. 그런데 손자가 이듬해 가을이면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할 줄이야. 그 후로 노인에게는 걱정거리가 붙어 하루 종일 시름에 잠겨있었다. 지금은 집집마다 애 하나밖에 없는데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노인은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어느 하루, 할머니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나 손자의 점괘를 본 일을 이야기 하였다. 그 사람은 파룬궁 학원이었는데 손자를 소선대에서 탈퇴시키고 성심으로 경건하게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설사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아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일일이 파룬궁 학원의 부탁대로 하였다. 이듬해 가을의 어느 하루, 소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정말로 차에 부딪쳤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가 조금도 상하지 않고

3 천으로 내려가 생명이 위험해졌다. 피를 수혈하고 좋은 약은 다 썼지만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안되겠으니 후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가족에서는 급히 장씨에서 전화를 걸어 즉시 비행기로 북경으로 돌아오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녀는 즉시 점심의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울면서 총 경리를 찾아 말미를 맡았다. 내가 그녀를 만나서 무슨 일인 가고 묻자 그녀는 울면서 사실을 이야기 했다. 나는 그녀를 안위하며 말하였다. 《급해하지 말아요. 내가 말한 대로만 한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내가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대법의 사부님께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하세요. 북경에 이를 때까지 염한다면 꼭 효과가 있을 거예요.》하자 그녀는 《좋아요. 꼭 그대로 할 거예요.》 하고는 묵념을 하면서 길을 떠났다.

오후 다섯 시 남짓하여 그녀가 북경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고마워요. 저는 줄곧 묵념하면서 북경까지 갔어요. 병원에 이르러보니 아버지는 이미 피를 토하지 않고 상태가 온정되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염하세요. 가족

이어 인츰 퇴원하였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도 대법의 신기함을 감수하고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나의 친척친구들은 원래 대법을 믿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 그들도 대법의 위력을 감수하였다.

저의 가족을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으로 신의 구결을 염하면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

동료 장씨의 아버지는 금년에 83 세이다. 집은 북경에 있고 공산당의 리퇴직 로간부로서 대우가 아주 좋다. 연령이 많아 신체가 허약했기에 해마다 절반이상의 시간을 로간부 료양원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좋은 약을 잡숫고 좋은 주사를 맞으면서 몸조리를 하였다. 날마다 의료인원들이 보살피고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었으며 달마다 영양비와 간호비를 받을 수 있는 외에 또 많은 고급 식품과 영양품을 탈수 있어 가족도 덕을 보았다. 그 자신도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였고 가족에서도 시름을 덜 수 있었다.

작년의 어느 하루, 늙은이는 정맥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입과 코로 피를 뱉어내었다. 병원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였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으며 혈소판이 10 만으로부터 이틀 사이에

20

이어 인츰 퇴원하였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도 대법의 신기함을 감수하고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나의 친척친구들은 원래 대법을 믿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 그들도 대법의 위력을 감수하였다.

저의 가족을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으로 신의 구결을 염하면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

동료 장씨의 아버지는 금년에 83 세이다. 집은 북경에 있고 공산당의 리퇴직 로간부로서 대우가 아주 좋다. 연령이 많아 신체가 허약했기에 해마다 절반이상의 시간을 로간부 료양원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좋은 약을 잡숫고 좋은 주사를 맞으면서 몸조리를 하였다. 날마다 의료인원들이 보살피고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었으며 달마다 영양비와 간호비를 받을 수 있는 외에 또 많은 고급 식품과 영양품을 탈수 있어 가족도 덕을 보았다. 그 자신도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였고 가족에서도 시름을 덜 수 있었다.

작년의 어느 하루, 늙은이는 정맥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입과 코로 피를 뱉어내었다. 병원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였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으며 혈소판이 10 만으로부터 이틀 사이에

20

점괘에서처럼 엄중한 후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할머니는 참으로 기뻐다. 그녀는 파룬궁 학원이 한 말이 정말임을 알게 되었다. 손자가 탈대하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였기에 한차례 재난을 넘긴 것이다. 이때로부터 할머니는 파룬따파의 위력에 대하여 더 한층 믿게 되었다.

학강시에는 또 소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있다. 그녀는 파룬궁의 진상을 듣고 탈대 하였으며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믿었다. 하루는 이 아이가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네 바퀴 차 한대가 그녀의 두 다리위로 지나갔다. 그러나 아이의 다리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아이가 놀라서 겁을 집어먹고 구토를 하였기에 병원으로 호송하였다. 이 가족의 친구인 파룬궁 학원이 소문을 듣고 재빨리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아이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라고 알려주었다. 이 여자아이는 한번 또 한번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였다.

의사는 전면 검사를 마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으며 일체가 정상 하다고 하였다.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가 아이를 보호했으며 파룬궁의 리대사님께서 아이를 평안하게 보호해주셨음을 깨달았다.

13

점괘에서처럼 엄중한 후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할머니는 참으로 기뻐다. 그녀는 파룬궁 학원이 한 말이 정말임을 알게 되었다. 손자가 탈대하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였기에 한차례 재난을 넘긴 것이다. 이때로부터 할머니는 파룬따파의 위력에 대하여 더 한층 믿게 되었다.

학강시에는 또 소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있다. 그녀는 파룬궁의 진상을 듣고 탈대 하였으며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믿었다. 하루는 이 아이가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네 바퀴 차 한대가 그녀의 두 다리위로 지나갔다. 그러나 아이의 다리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아이가 놀라서 겁을 집어먹고 구토를 하였기에 병원으로 호송하였다. 이 가족의 친구인 파룬궁 학원이 소문을 듣고 재빨리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아이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라고 알려주었다. 이 여자아이는 한번 또 한번 《파룬따파는 좋다》를 염하였다.

의사는 전면 검사를 마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으며 일체가 정상 하다고 하였다.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가 아이를 보호했으며 파룬궁의 리대사님께서 아이를 평안하게 보호해주셨음을 깨달았다.

13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으니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분복을 받다

다년이래, 나의 아들의 학습성적은 줄곧 우수하였다. 금년 대학 입학 고시 전, 전시의 제 1 차, 제 2 차 모의시험 성적은 겨우 470 점이었다. 이왕의 경험으로 보면 전시의 두 차례 모의시험의 성적은 실제적인 대학 시험 성적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성적이 10, 20 점 정도 내려가기가 일수였다. 이렇게 본다면 나의 아들은 금년에 본과대학에 못 붙을 상황이었다.



나의 아내(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는 조금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밥맛도 없어하였다. 나는 한 수련인으로서 《사람마다 자신의 운명이 있다》는 도리를 알고 있었다. 한 방면으로는 애써 아들의 시험에 대한 집착심을 내려놓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아들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도록 하였다.

전에도 여러 차례 아이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해 주고 《대법이 좋다》를 염하라고 당부하였지만 아이는 놀음에 탐하고 움직이기 좋아하여 기본상에서 나의 부탁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열은 내리지 않고 입안에까지 물집이 생겼다.

남편은 얼굴만 돌리면 눈물을 흘렸다. 몇 번이고 의사에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가고 물었지만 의사의 대답은 번마다 그를 실망시켰다. 그의 찌푸린 이마를 보면서 나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시 병원으로 옮기어 진단을 받으려던 전날 저녁, 나의 한 친척이 대법의 호신부 한 장을 보내 오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하였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호신부를 받고 다 죽은 말을 산 말로 치료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시작하였다.

새벽 두 시 남짓하여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일을 보았다. 장도가 통하는 느낌이 들고 몸은 아주 편하였다. 아이를 돌볼 수 있었고 열이 내린 것 같았다. 아침에는 남편이 산 좁쌀죽도 마실 수 있었다. 이어서 의사가 병실에 와서 체온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이었다. 의사들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때에야 나는 믿을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하여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스스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수 있었으며 뒤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를 읽으니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분복을 받다

다년이래, 나의 아들의 학습성적은 줄곧 우수하였다. 금년 대학 입학 고시 전, 전시의 제 1 차, 제 2 차 모의시험 성적은 겨우 470 점이었다. 이왕의 경험으로 보면 전시의 두 차례 모의시험의 성적은 실제적인 대학 시험 성적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성적이 10, 20 점 정도 내려가기가 일수였다. 이렇게 본다면 나의 아들은 금년에 본과대학에 못 붙을 상황이었다.



나의 아내(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는 조금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밥맛도 없어하였다. 나는 한 수련인으로서 《사람마다 자신의 운명이 있다》는 도리를 알고 있었다. 한 방면으로는 애써 아들의 시험에 대한 집착심을 내려놓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아들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도록 하였다.

전에도 여러 차례 아이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해 주고 《대법이 좋다》를 염하라고 당부하였지만 아이는 놀음에 탐하고 움직이기 좋아하여 기본상에서 나의 부탁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열은 내리지 않고 입안에까지 물집이 생겼다.

남편은 얼굴만 돌리면 눈물을 흘렸다. 몇 번이고 의사에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가고 물었지만 의사의 대답은 번마다 그를 실망시켰다. 그의 찌푸린 이마를 보면서 나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시 병원으로 옮기어 진단을 받으려던 전날 저녁, 나의 한 친척이 대법의 호신부 한 장을 보내 오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하였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호신부를 받고 다 죽은 말을 산 말로 치료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시작하였다.

새벽 두 시 남짓하여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일을 보았다. 장도가 통하는 느낌이 들고 몸은 아주 편하였다. 아이를 돌볼 수 있었고 열이 내린 것 같았다. 아침에는 남편이 산 좁쌀죽도 마실 수 있었다. 이어서 의사가 병실에 와서 체온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이었다. 의사들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때에야 나는 믿을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하여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스스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수 있었으며 뒤



르기에 다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영할 줄밖에 모른다. 그날부터 시작하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가 언니의 좌우명이 되었다. 전에는 머느리가 노엽히면 방법이 없어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었다. 지금은 머느리가 화나게 하면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영한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언니는 말한다. 온몸에 힘이 넘쳐나는데 마치도 신이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다고.

저의 일가족을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 년의 겨울날, 나는 현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13 일 동안 줄곧 침대에 누워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날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고열이 계속되어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다. 눈물은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고 생명은 정맥주사로 연장하고 있었다. 외과의사가 진단하고 B 초 검사를 한데 의하면 복강 내에 오리 알만큼 한 종류가 있고 맹장에도 염증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는 외과병동에 옮겨가 있다가 열이 내리면 수술을 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외과에서 사흘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약을 썼지만 고

르기에 다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영할 줄밖에 모른다. 그날부터 시작하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가 언니의 좌우명이 되었다. 전에는 머느리가 노엽히면 방법이 없어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었다. 지금은 머느리가 화나게 하면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영한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언니는 말한다. 온몸에 힘이 넘쳐나는데 마치도 신이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다고.

저의 일가족을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 년의 겨울날, 나는 현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13 일 동안 줄곧 침대에 누워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날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고열이 계속되어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다. 눈물은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고 생명은 정맥주사로 연장하고 있었다. 외과의사가 진단하고 B 초 검사를 한데 의하면 복강 내에 오리 알만큼 한 종류가 있고 맹장에도 염증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는 외과병동에 옮겨가 있다가 열이 내리면 수술을 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외과에서 사흘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약을 썼지만 고

아이는 자신의 두 차례 모의시험 성적을 보고 나서야 눈이 휘둥그래지고 급해 났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결심을 내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어림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나의 요구대로 하였다. 대학시험을 치르는 그 사흘 동안, 아침에 깨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바로 침대에서 가부좌를 하고 두 손을 합장하고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는 것이었다. 연속 다섯 차례 시험에서 매번 시험지가 내려올 때마다 그는 먼저 시험지를 마주하고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나서야 필을 들어 답안을 써내려 갔다.

6 월 하순의 이날은 전성에서 대학입학 성적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아내와 아들은 성적이 나빠서 자극을 받을 가 두려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더니 성적이 539 점으로서 모의 시험성적보다 거의 70 점이나 높았다. 당시 아내와 아들은 못미더워하면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나서야 시름을 놓았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정말로 격동되었다. 진정으로 대법의 초상 함과 자비를 감수하였고 진정으로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아이는 자신의 두 차례 모의시험 성적을 보고 나서야 눈이 휘둥그래지고 급해 났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결심을 내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어림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나의 요구대로 하였다. 대학시험을 치르는 그 사흘 동안, 아침에 깨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바로 침대에서 가부좌를 하고 두 손을 합장하고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는 것이었다. 연속 다섯 차례 시험에서 매번 시험지가 내려올 때마다 그는 먼저 시험지를 마주하고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나서야 필을 들어 답안을 써내려 갔다.

6 월 하순의 이날은 전성에서 대학입학 성적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아내와 아들은 성적이 나빠서 자극을 받을 가 두려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더니 성적이 539 점으로서 모의 시험성적보다 거의 70 점이나 높았다. 당시 아내와 아들은 못미더워하면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나서야 시름을 놓았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정말로 격동되었다. 진정으로 대법의 초상 함과 자비를 감수하였고 진정으로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분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지금, 아들은 현지의 본과대학 (예술계)에 녹취되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

큰 언니의 좌우명

2006년 음력 12월 12일은 어머니의 86세 생신 날이다. 아침식사 후, 나와 큰 언니는 매서운 겨울 바람과 흩날리는 눈을 무릅쓰고 림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 가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려고 급급히 기차역전으로 갔다.

대략 12시 좌우, 남으로 가는 기차는 서서히 발차하였다. 한 시간이 안되어 기차는 림기역에 도착하였다. 금방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니는 불편하다고 하였다. 나는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한 손으로 언니를 부축하면서 대기실로 들어갔다.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언니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나의 마음은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오는 듯싶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이 위급한 시각에 귀가에서 한 파룬궁 수련인이 하던 말이 울려왔다: 위급한 상황에서 《파



묵념하면 분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지금, 아들은 현지의 본과대학 (예술계)에 녹취되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

큰 언니의 좌우명

2006년 음력 12월 12일은 어머니의 86세 생신 날이다. 아침식사 후, 나와 큰 언니는 매서운 겨울 바람과 흩날리는 눈을 무릅쓰고 림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 가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려고 급급히 기차역전으로 갔다.

대략 12시 좌우, 남으로 가는 기차는 서서히 발차하였다. 한 시간이 안되어 기차는 림기역에 도착하였다. 금방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니는 불편하다고 하였다. 나는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한 손으로 언니를 부축하면서 대기실로 들어갔다.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언니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나의 마음은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오는 듯싶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이 위급한 시각에 귀가에서 한 파룬궁 수련인이 하던 말이 울려왔다: 위급한 상황에서 《파



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면 화가 복으로 변하고 전화위복 할 것입니다. 나는 언니의 옆에 꾸그리고 앉아 마음속으로 리선생님께 언니를 구해달라고 청을 드리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가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누가 주의하지 않나 두리번두리번 살폈지만 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할 사이 없이 부지런히 염하고 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대략 15분이 지나 언니는 한번 움직였다.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니 많은 땀이 흘렀다. 언니는 정신을 차리고 첫마디로 《네가 나의 인종혈을 눌렀니?》하고 물었다.

나는 격동되어 말했다. 《아니요. 리선생님께서 언니를 구해주셨어요! 파룬따파가 언니를 구했어요! 지금 어떨까요?》 언니는 《불편한 곳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5년 전부터 언니에게는 이런 병이 있었다. 번마다 혼미상태에 빠질 때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나는 기차역에서 발생한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모두들 듣고 나서 아주 놀라워하면서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다고 찬탄하였다.

그때로부터 어느새 일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언니의 병은 다시는 도지지 않았다. 언니는 글을 모

룬따파는 좋다》를 염하면 화가 복으로 변하고 전화위복 할 것입니다. 나는 언니의 옆에 꾸그리고 앉아 마음속으로 리선생님께 언니를 구해달라고 청을 드리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가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누가 주의하지 않나 두리번두리번 살폈지만 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할 사이 없이 부지런히 염하고 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대략 15분이 지나 언니는 한번 움직였다.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니 많은 땀이 흘렀다. 언니는 정신을 차리고 첫마디로 《네가 나의 인종혈을 눌렀니?》하고 물었다.

나는 격동되어 말했다. 《아니요. 리선생님께서 언니를 구해주셨어요! 파룬따파가 언니를 구했어요! 지금 어떨까요?》 언니는 《불편한 곳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5년 전부터 언니에게는 이런 병이 있었다. 번마다 혼미상태에 빠질 때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나는 기차역에서 발생한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모두들 듣고 나서 아주 놀라워하면서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다고 찬탄하였다.

그때로부터 어느새 일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언니의 병은 다시는 도지지 않았다. 언니는 글을 모